

道脈(도맥)의 正統性(정통성)을 밝힌다

土運(토운)은 따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金運(금운)이 土運(토운)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金運(금운)은 六極(육극)의 天(육극지천)인 동시에 七極(칠극)의 天(칠극지천)의 주인공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三天太極(삼천태극) 一符圖(일부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삼역대경에 ‘天之無極(천지무극)과 地之太極(지지태극)과 人之皇極(인지황극)이라고 하였으니 天之無極(천지무극)은 先天運(선천운)이요, 地之太極(지지태극)은 後天運(후천운)이요 人之皇極(인지황극)은 中天運(중천운)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中天運(중천운)이 皇極(황극)의 運(운)과 같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河洛合符歌(하락합부가)의 三生歌(삼생가)에도 ‘中央皇極仙道法(중앙황극선도법)은 中庸之德(중용지덕) 中天運(중천운)이라’ 중앙에 위치한 皇極(황극)이 仙道(선도의) 법(법)이요, 仙道(선도의) 皇極(황극)이 中天運(중천운)을 뜻한다.

그런데 왜 中央(중앙)에 皇極(황극)이 위치해 있다고 하면서 皇極(황극)은 仙道法(선도법)이요 中天運(중천운)이라고 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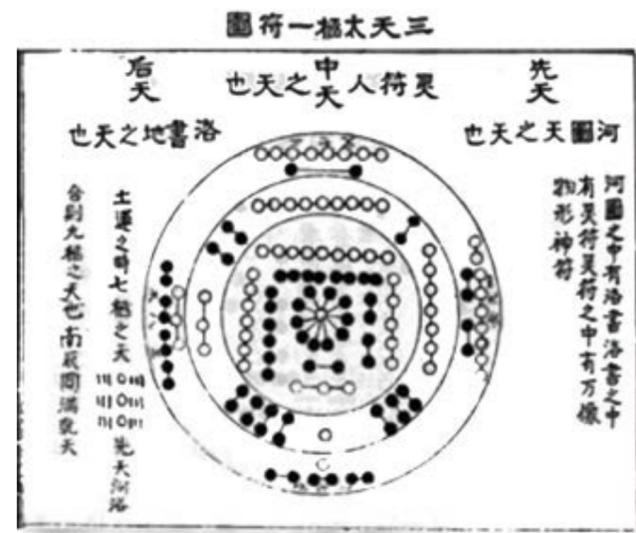
동양사상에서는 天地人(천지인)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순서로 볼 때에는 先天(선천), 後天(후천), 中天(중천)이다.

그러나 대표로 이를 설명할 때에는 中天運(중천운)이 가운데 위치할 수밖에 없다. 이를 설명한 것이 곧 “三天太極(삼천태극) 一符圖(일부도)”이다.

즉 先天(후천) 河圖(선천 하도)는 그 순서에 의해 첫째요, 後天(후천) 洛書(후천 낙서)는 두 번째요, 中天(중천) 靈符人(중천 영부인)은 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皇極(황극)은 中天運(중천운)이라 하였으니 皇極(황극)의 자리 역시 中(중)이다.

中(중)은 또한 土(토)의 자리이기도 하니 十五中央戊己土(오십중앙무기토), 또는 中央戊己五土(중앙무기오십토)라고도 한 것이다. 즉 方位(방위)로는 中央(중앙)이요, 天干(천간)으로는 戊己(무기)이요, 易數(역수)로는 五十(오십)이요, 五行(오행)으로는 土(토)라는 뜻이다.

또한 土(토)는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皇極(황극)과 無極(무극)의 자리이기도 하니 十五中央土(십오중앙토)요 中央(중앙) 皇極(황극) 中天運(중천운)이라 하였으니 皇極(황극), 마귀를 이기는 無極(무극), 土(토) 모두가 같은 中天運(중천운)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三天太極一符圖(삼천태극일부도)에는 圓(원)으로 세 번째에 위치한 가운데 卦象(괘상)이 中(중)이니 中天運(중천운)이요 그 자리에 土(토)가 위치하고 있으니 金運(금운)은 六極(육극)의 天(육극지천)인 동시에 七極(칠극)의 天(칠극지천)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三易大經(삼역대경)에 이를 설명하기를 ‘自一至十之精則(자일지십지정즉) 八十一宮(팔십일궁) 皇極(황극) 中天運(중천운)이라 하였으니 皇極(황극), 마귀를 이기는 無極(무극), 土(토) 모두가 같은 中天運(중천운)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土(토)요, 土(토)는 八十一宮(팔십일궁)의 中天運(중천운) 자리인데 이 자리가 마지막 끝 運(운)이라는 뜻이니 그러므로 土運(토운)이 따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그러므로 曹熙星(조희성)님께서 五十歲(오십세)에 道(도)의 完成者(완성자)인 勝利者(승리자)가 되신 것도 中央戊己五土(오십오기오십토) 黃帝將軍(황제장군) 句陳騰蛇(구진등사) 皇極(황극)=無極(무극)의 運(운)으로 오신 주인공이라는 상징적인 뜻에 응하신 것이다.

三天太極一符圖(삼천태극일부도)

先天 河圖天之天也, 後天 洛書地之天也, 中天 靈符人之天也
선천 하도천지천야, 후천 낙서지천야, 중천 영부인지천야
河圖之中有洛書 洛書之中有靈符 靈符之中有萬像物形神符
하도지중유낙서 낙서지중유영부 영부지중유만상물형신부
土運之時七極之天 三三三〇〇三三三
토운시칠극지천
先天河洛合則九極之天也 南辰圓滿乾天
선천하락합칙 구극지천야 남진원만건천

결론적으로 三天太極一符圖(삼천태극일부도)는 말 그대로 先天(선천), 後天(후천) 中天(중천)의 그림을 합해놓은 것이다. 선천의 河圖(하도) 안에 후천의 洛書(낙서)가 있고 낙서 안에 중천의 靈符(영부)가 있고 靈符(영부) 안에는 萬像物(만상물), 즉 만물이 하나님의 신으로 화한 神符(신부)의 形像(형상)이 있다. 마침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으로 서 중앙에 좌정하신 것이다.

이를 土運(토운)의 七極(칠극)의 天(토운시칠극지천)이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앙에 좌정하신 모습을 卦象(괘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를 先天(선천)의 河圖(하도)와 합하면 九極(구극)의 天(구극지천)이 되어 圓滿(원만)한 3개의 원의 形像(형상)으로 이루어진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三數(삼수=三神=

三靈)와 三男(삼남)·三女(삼녀)인 伏羲氏(복희씨), 文王氏(문왕씨), 水雲(수운), 火雲(화운), 木運(목운), 金運(금운)의 九靈(구영)이 한자리에 모여 3+3+3=9數(수)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두 번 다시는 마귀에게 패할 수 없는 十勝(이기신) 하나님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다시 마귀한테 지는 옛날 그대로의 無極(무극)으로 돌아갈 일은 없는 것이다.

三天太極一符圖(삼천태극일부도)의 가운데 中天運(중천운)의 卦象(괘상)은 白一(백일)에다 黑十(흑십)의 圓(원)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十(십)은 하나님(天帝) 전체, 一(일)은 一六水(일육수), 또는 天一生水(천일생수)라 하여 甘露水(감로수)를 상징하니 土(토)에 위치한 中天運(중천운)의 주인공은 甘露水(감로수)를 내리는 생미륵불이라는 것이다.*

鄭鑑錄(정감록)에 豫言(예언)된 正道令(정도령)의 出現時期(출현시기)

鄭鑑錄(정감록)에는 辰(진), 子(자), 申(신)의 세 번 위기를 넘긴 후에야 正道令(정도령)이 출현한다고 예언되어

鄭鑑錄(정감록)은 李氏王朝(이씨왕조)의 創業(창업)과 앞날에 전개될 王運(왕운)을 易理(역리)에 의한 秘文法(비문법)으로 저술한 讖緯說(참위설)이 그 豫言(예언)의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鄭鑑錄(정감록)은 異本(이본)이 많다고 알려져 왔고 眞本(진본)이라고 주장하는 책에는 內閣眞本(내각진본)과 河回眞本(하회진본)의 두 종류가 있으나 그 내용은 大同小異(대동소이)한 수많은 여러 秘記(비기)를 集大成(집대성)한 讖緯叢書(참위총서)로 칭하여 鄭鑑錄(정감록)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이 鄭鑑錄(정감록)은 다른 여러 秘訣書(비결서)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原文(원문)이 발견되지 않고 筆寫本(필사본)만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러므로 讖緯叢書(참위서)의 性格(성격)상 여러 異本(이본)이 많은 가운데 眞本(진본)의 眞僞(진위)를 밝히기란 쉽지 않으므로 이 문제는 論外(논외)로 하고 다만 鄭鑑錄(정감록)의 秘文(비문)을 解讀(해독)한 正道令(정도령)의 出現時期(출현시기)에 대한 豫言內容(예언내용)의 年代(연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였다.

鄭鑑錄(정감록)에는 秘文法(비문법)으로 기록하기를 地支(지지)인 辰(진), 子(자), 申(신)의 세 번 위기를 넘긴 후에야 正道令(정도령)이 출현한다고 예언되어 있다. 그렇다면 辰(진), 子(자), 申(신)과 연결된 세 번의 國難(국난)의 危機(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辰(진)은 壬辰年(임진년)인 1592년 즉 宣祖(선조) 25년 음 4월 13일에 일어난 壬辰倭亂(임진왜란)을 상징하는 辰(진)이다.

두 번째 子(자)는 丙子年(병자년)인 1636년 즉 仁祖(인조) 14년 음 12월 9일에 일어난 丙子胡亂(병자호란)을 상징하는 子(자)를 뜻한다. 즉 淸(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한 1636년 丙子年(병자년)의 다음해인 正月(정월)에 남한산성에서 仁祖(인조)가 敗戰(패전)한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 申(신)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80년 5월 18일 즉 庚申年(경신년) 음 4월 5일에 광주민주항쟁이 일어나 全國(전국)이 戒嚴令下(계엄령하)에 들어간 상태에서 當時(당시) 군사정권과의 충돌로 많은 人命(인명)이 희생당한 사건이 곧 연인서 상의 세 번째 國難(국난)의 危機(위기)에 해당되고 申(신)은 이 庚申年(경신년)의 申(신)을 의미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以前(이전)에 일어난 庚寅年(경인년)인 1950년의 南北戰爭(남북전쟁)은 왜 國難(국난)에서 제외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참고로 한때 150만 명의 신자를 이끌었던 신양촌의 박태선 장로는 “6.25사변은 이긴 자를 배출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설교 단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庚寅年(경인년)의 6.25 南北戰爭(남북전쟁)은 豫言書(예언서)의 秘文(비문)인 辰(진), 子(자), 申(신) 地支(지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庚申年(경신년)인 1980년을 세 번째 國難(국난)의 危機(위

기)라고 예언한 것은 正道令(정도령) 출현과 연관이 있는 해이기 때문이다.

즉 庚申年(경신년)인 1980년 10월 15일에 曹熙星(조희성)님께서 마귀와의 靈的(영적) 싸움에서 勝利(승리)하시고 道(도)의 完成者(완성자)가 되어 世上(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으니 이는 鄭鑑錄(정감록)에 辰(진), 子(자), 申(신)의 세 번의 國難(국난)의 危機(위기)를 넘긴 後(후)에 正道令(정도령)이 出現(출현)한다는 豫言內容(예언내용)과도 정확히 一致(일치)한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 民族宗教(민족종교)의 運去運來(운거운래)하는 道脈(도맥)의 正統性(정통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니 歷史(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60년인 庚申年(경신년) 음 4월 초 5일은 東學(동학)의 始祖(시조)인 水雲(수운) 崔濟愚(최제우) 先生(선생)이 得道(득도)한 날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제우 선생이 득도한 120년 후인 庚申年(경신년) 1980년 음 4월 초 5일은 광주민주항쟁이 일어났으니 120년 전 崔濟愚(최제우) 先生(선생)이 得道(득도)한 바로 그날이다.

왜 이 일을 여기에 연결시켜 지적하는 나 하면 正道令(정도령)출현의 時期(시기)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庚申年(경신년)인 1980년 10월 15일에 曹熙星(조희성)님께서 마귀와의 靈的(영적) 싸움에서 勝利(승리)하시고 道(도)의 完成者(완성자)가 되셨다

水雲(수운) 崔濟愚(최제우) 先生(선생)의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묻기를 “後天世界(후천세계)가 언제 開闢(개벽)되니까?”하니 최제우 선생의 대답이 “두 번째 生日(생일)에 돌아와 세상을 개벽하겠노라!”하였다. - 「水雲心法(수운심법)」 바로 이 두 번째 생일이 광주민주항쟁이 일어난 庚申年(경신년)인 1980년 음 4월 초 5일이다. 왜냐하면 正道令(정도령)이 1980년 10월 15일에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崔濟愚(최제우) 先生(선생)이 得道(득도)한 첫 번째 생일은 庚申年(경신년)인 1860년 음 4월 초 5일이며, 두 번째 生日(생일)도 庚申年(경신년)인 1980년 음 4월 초 5일이 되는데 이는 正道令(정도령)이 1980년에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같은 맥락에서 볼 때 최제우 선생이 답변한 “두 번째 生日(생일)에 돌아와 세상을 개벽하겠노라!” 한 것은 제자들이 묻는 後天開闢(후천개벽)이 아닌 中天運(중천운)인 人尊時代(인존시대)의 開闢(개벽)을 뜻하였던 것이니 이미 水雲(수운) 崔濟愚(최제우) 先生(선생)은 後天運(후천운)의 開闢(개벽)의 사명을 받고 오신 분이기에 때문이다.

그러므로 庚申年(경신년)인 1980년 5월 18일 즉 음 4월 초 5일은 水雲(수운) 崔濟愚(최제우) 선생의 靈的(영적) 두 번째 得道(득도)의 生日(생일)에 해당하고 이는 곧 鄭鑑錄(정감록)에 예언되어 있는 세 번째 國難(국난)의 危機(위기)를 넘긴 후 正道令(정도령)이 출현하게 되어 있다는 예언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우리나라 民族宗教(민족종교)인

東學(동학)의 始祖(시조)인 水雲(수운) 崔濟愚(최제우) 선생의 다음 運(운)인 火雲(화운) 龜山(중산) 姜一淳(강일순) 선생도 자기의 뒤를 이을 道脈(도맥)이 中天運(중천운)으로 오신 木運(목운)과 金運(금운)으로 계승될 것임을 『大巡典經(대순전경, 開闢(개벽)과 仙壇(선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때는 天地成功時代(천지성공시대)라! 西神(서신)이 司命(사명)하야 萬有(만유)를 지배하며 무 이치를 크게 모아 이루니 이른바 開闢(개벽)이라”하였고, 李朝時代(이조시대)의 奇人(기인) 李書九(이서구) 先生(선생)이 지은 採芝歌(채지가)의 七月食瓜(칠월식과)에는 “火神司命(화신사명)하을적에 여름 夏(하)자 마련하니 先天運數(선천운수) 돌아가고 後天運數(후천운수) 돌아왔네 木神司命(목신사명) 하을적에 근본본자 봄春(춘)자 요 人尊時代(인존시대) 되었으니 周易(주역)이 正易(정역)된다. 地天泰卦(지전태괘) 되었으니 金神司命(금신사명) 하을적에 歌乙歌乙(가을가을) 노래하니 秋分度數(추분도수) 되었구나. 申酉金風(신유금풍) 찬바람에 萬物成熟(만물성숙) 좋은 때라.” 하였으니 인생을 秋收(추수)할 주인공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秋分度數(추분도수)로 오신 金運(금운) 曹熙星(조희성)님이 1981년 신유년 8월 18일에 金風(금풍=영생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만물을 성숙하게 하는 신천신지의 개벽 시대를 연다는 뜻이다.

또한 같은 採芝歌(채지가)의 南朝鮮(남조선) 薔薇(로제)에는 다음과 같이 읊었으니 “배피워라 배피워라 南朝鮮(남조선)

선) 배피워라 天地(천지)로 배를 모아...”하였고, 이 배의 正體(정체)는 무엇인가를 格菴遺錄(격암유록)의 弓乙圖歌(궁을도가)에는 “億兆蒼生(억조창생) 건지려고 十勝方舟(십승방주) 예비하여 萬頃蒼波(만경창파) 풍랑속에 救援船(구원선)을 띄웠으니 의심 말고 속히타소 都沙工(도사공)이 十勝(십승)일세” 하였으니 이 배는 억조창생을 건지려는 救援(구원)의 方舟(방주)요 苦海(고해)같은 세상에서 중생을 구원하려는 救援船(구원선)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十勝(십승)의 方舟(방주)와 十勝(십승)의 都沙工(도사공)이란 무슨 뜻인가를 격암유록 初章(초장)에는 “十勝(십승)何十勝(십승십승하십승) 勝利臺上(승리대) 眞十勝(승리대상진십승)”이라고 하였으니 勝利臺(승리대)란 勝利祭壇(승리제단)과 같은 뜻이요 眞十勝(진십승)이란 승리제단의 都沙工(도사공) 격인 勝利者(승리자)가 眞十勝(진십승)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바 있는 勝利祭壇(승리제단)의 總籤(총제)이신 曹熙星(조희성)님이 庚申年(경신년)인 1980년 10월 15일에 格菴遺錄(격암유록)에 예언되어 있는 蘇萊山(소래산)과 老姑山(노고산)이 마주 바라보이는 俗稱(속칭) “密室(밀실)”에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得道(득도)하셔서 十勝(십승)의 勝利者(승리자)가 되셨고, 正道令(정도령)의 代名詞(대명사)로 호칭을 듣는 주인공이시다. 이에 대해서 六韜三略(육도삼략)과 格菴遺錄(격암유록) 그리고 採芝歌(채지가), 鄭鑑錄(정감록) 등에 의해서 분명히 밝혀져 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부산제단 : (051)863-6307
연제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10-7518-9981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